

# 요약

---

## 현행 시스템, 수도권 대중교통의 특성 반영에 한계

수도권은 버스-철도로 연계된 방대한 대중교통수단이 운영되며 일일 약 2,000만 건의 교통카드자료가 실시간 DB화되고 있으나 현재의 조직, 예산, 협약, 분석 기반 관련 시스템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. 특히 수도권통합요금환승할인체제로 진입 이후 운송기관 및 지자체 수입금 정산·배분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며 자료공유, 통합대중교통분석 부문에서도 연계·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

수도권 통합대중교통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·소규모 포럼을 진행하였다. 1~4차 포럼에서는 대중교통카드 분석 및 데이터 관련 이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, 5~6차 포럼에서는 수도권 대중교통을 관리하고 분석체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조직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.

## 수도권 통합대중교통체계 관리·분석 총괄조직 설립

수도권 통합대중교통체계 관리·분석 조직은 수도권 전체의 버스-철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분석을 통하여 지자체별 정책이 아닌 수도권 단일 광역대중교통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. 신규 운송기관의 진입에 따른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이 가능하여야 하며, 통합요금체계에 참여하는 기관 및 지자체의 협의규약을 제안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. 조직은 수도권교통본부가 운영하고, 자료 표준화, 통합모형 구축 등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 수행이 가능한 지자체 연구기관 통합관리센터가 협력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.